

集安지역 高句麗 王陵의 造營

공석구¹⁾

目 次

- I. 緒 言
- II. 高句麗 王陵의 造營
 - 1. 고구려왕의 죽음
 - 2. 왕릉의 選定
 - 3. 王陵의 築造
- III. 맺음말

I. 緒 言

고구려시대의 수도로서 기능했던 집안지역의 고구려 왕릉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시작된 것은 근래에 이르러서였다. 그 계기는 2004년 고구려 왕릉보고서가 출간되면서부터라 하겠다²⁾. 그 이전, 중국에서는 집안지역의 고구려고분에 대한 대대적인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간략한 현황보고서³⁾를 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고분의 위치, 규모 등에 대한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어 집안지역에 분포된 고구려고분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었다. 이후 중국에서는 중국내 고구려유적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2003년부터 집안지역의 왕릉급고분에 대한 정비와 보존차원에서 학술적인 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물로 간행된 것이 앞서 거론한 『集安高句麗王陵』 보고서(이하는 「왕릉보고서」로 약칭하겠음)이다. 「왕릉보고서」를 보면 집안지역에 산재한 왕릉급으로 추정되는 고분 24개를 대상으로서 선정하였고, 이중에 13개에 달하는 초대형고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1) 한밭대 교수

2)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編著, 『集安高句麗王陵』, 文物出版社, 2004.

3)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編著, 『洞溝古墓群-1997年調查測繪報告』, 科學出版社, 2002.

『왕릉보고서』에는 이들 왕릉급고분에 대한 축조기법과 구조, 출토유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이 보고서에는 기왕에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정보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왕릉급 고구려 고분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다. 나아가 『왕릉보고서』는 이와 같은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좀 더 적극적인 해석을 시도하였다. 이들 무덤의 축조연대를 1세기 전후부터 5세기 대까지의 왕릉으로서 추정했으며, 일부 무덤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고구려왕을 구체적으로 비정해내는 결과를 도출해냈다.

『왕릉보고서』는 고고학적으로 고구려 왕릉에 대한 대체적인 윤곽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제공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왕릉보고서』에 담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이들이 어느 왕의 무덤으로 비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단서가 발견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에 담긴 내용들은 고구려왕릉 비정에 대한 학자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기에 충분했고, 이후 고구려 왕릉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시도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이후 전개된 학자들의 연구내용을 정리해보면⁴⁾ 오히려 고구려왕릉 비정문제가 더욱 복잡해진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⁵⁾. 제시된 표에서도 나타나듯이 고구려왕릉

4) 이후 학자들의 관련연구들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 [1] 조병동, 「중국직안 학원원 호태왕명분향유물」, 『한국고대사연구』 33, 한국고대사학회, 2004.
- [2] 이도학, 「태왕릉과 장군분의 피장자문제」, 『희산학보』 69, 희산학회, 2004.
- [3] 김용성, 「고구려적석총의 분격과 묘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 『북방사논총』 3, 고구려연구재단, 2005.
- [4] 송계현, 「桓仁과 樂安의 고구려 갑주」, 『북방사논총』 3, 고구려연구재단, 2005.
- [5] 桃崎祐輔, 「高句麗太王陵出土土器からみた 好太王陵の評価」, 『海と考古學』, 海交史研究會考古學論集刊行會編, 2005.
- [6] 金希燦, 「국내성지역에서 새로 발견된 화당연구」, 『高句麗研究』 19, 고구려연구회, 2005.
- [7] 李道學, 「太王陵과 將軍塚의 被葬者問題 再論」, 『高句麗研究』 19, 고구려연구회, 2005.
- [8] 朴承範, 「집안일대 고구려 왕릉의 '계단」, 『高句麗研究』 19, 고구려연구회, 2005.
- [9] 朴燦圭, 「樂安지역에서 최근 발견된 고구려 분지자료」, 『高句麗研究』 19, 고구려연구회, 2005.
- [10] 李相燾, 「太王陵의 墓主는 누구인가?」, 『韓國考古學』 59, 한국고고학회, 2006.
- [11] 余昊奎, 「樂安地域 고구려 超大型 積石墓의 전기과정과 被葬者 문제」, 『한국고대사연구』 41, 한국고대사학회, 2006.
- [12] 姜현숙, 「중국 길림성 집안지역 고구려 왕릉의 구조에 대하여」, 『한국고대사연구』 41, 한국고대사학회, 2006.
- [13] 최중덕, 「樂安 '高句麗王陵' 出土遺物の 諸問題」, 『한국고대사연구』 41, 한국고대사학회, 2006.
- [14] 김장호, 「고구려 太王陵을 둘러싼 新 史의 再작시기」, 『희산학보』 76, 희산학회, 2006.
- [15] 姜현숙, 「고구려고분출토 화당의 별칭연구」, 『한국고고학』 64, 한국고고학회, 2006.
- [16] 東國, 「高句麗王陵と巨大積石墓-國內城時代の陵園制-」, 『朝鮮學報』 199.200合, 日本 朝鮮學會, 2006.
- [17] 조병동, 「고조선 고구려사연구」 신서원, 2006.
- [18] 耿維華, 「樂安出土卷雲文瓦當研究」, 『東北史地』 2007-4, 길림성사회과학원, 2007.
- [19] 張福有 孫仁杰 逄勇, 「高句麗王陵通考要覽」, 『東北史地』 2007-4期, 2007.
- [20] 魏存成, 「樂安高句麗大形積石墓王陵研究」, 『社會科學戰線』 2007-4期, 2007.
- [21] 임기환, 「집안의 장지명 왕호와 집안의 왕릉 비정」, 『고구려왕릉연구위크숍』, 동북아역사재단, 2007.
- [22] 桃崎祐輔, 「高句麗王陵出土土器 諸葬品の續年と年代」, 『고구려왕릉연구위크숍』, 동북아역사재단, 2007.
- [23] 東國, 「高句麗王陵と陵園制-國內城~平壤城時代-」, 『고구려왕릉연구위크숍』, 동북아역사재단, 2007.
- [24] 이도학, 「樂安地域 高句麗王陵에 관한 新考察」, 『고구려왕릉연구』 30, 2008.

5) 『왕릉보고서』출간이후 왕릉비정에 대한 연구현황은 다음과 같다.

비정에 학자들의 견해가 일치되는 경우가 흔치 않다. 이는 왕릉비정에 대한 기초적인 검토가 미진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배경을 찾을 수 있다.

본고는 『왕릉보고서』를 검토하여, 고구려 왕릉을 비정하기 위한 목적의 일환으로서 시도되었다. 이번에는 집안지역의 고구려왕릉 비정논쟁에 필요한 몇 가지 내용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왕의 죽음이후 전개되는 상황을 정리할 것이다. 여기에는 왕릉의 조영에 따른 위치선정, 왕릉조성, 왕릉축조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이다. 이와 같은 기초적인 검토를 거친 연후에 각 고구려왕릉⁶⁾ 비정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 기대된다.

II. 高句麗 王陵의 造營

1. 고구려왕의 죽음

고구려왕의 죽음 이후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인가? 이 문제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사료는 없다. 단지 관련 사료를 통해서 그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死者 殯於屋內. 經三年 擇吉日而葬(『北史』권94, 열전82, 高麗)

	마선구 626호	환성산 671호	임강묘	우산하 2,110호	환성산 211호	서대묘	우산하 992호	마선구 2,100호	천추묘	태왕릉	장군분
『왕릉보 고서』					서천왕	미천왕	고국원왕	소수림왕	고국양왕	광개토왕	장수왕
東城						미천왕	고국원왕	미천왕 2차	고국양왕	소수림왕	광개토왕
여호규			동천왕			미천왕			고국원왕	고국양왕	광개토왕
孫仁杰, 孫興 孫仁杰, 孫興	대무신왕	태조왕	산상왕	고국천왕	서천왕	미천왕	고국원왕	봉상왕	소수림왕	광개토왕	장수왕
魏存夜		산상왕	동천왕	중천왕	서천왕, 미천왕	미천왕	고국원왕	소수림왕	고국양왕	광개토왕	장수왕
임기환	산상왕	신대왕, 고국천왕	동천왕	중천왕	서천왕	미천왕	고국원왕		소수림왕	고국양왕	광개토왕
柳龍城	산상왕		중천왕	동천왕	서천왕	미천왕	고국원왕	소수림왕	고국양왕	광개토왕	장수왕

이와 같은 왕릉비정에 대한 견해차이 이외에도 광개토왕릉에 대한 비정논란이 더욱 증폭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 6) 왕릉의 개별적인 용어는 연구자에 따라 각기 사용되고 있는데 혼잡을 피하기 위해 『왕릉보고서』에서 정한 명칭을 사용하겠다(ex, 장군총⇒장군분, 천추총⇒천추묘 등).

위의 사료는 고구려의 喪葬儀禮를 기록한 것이다. 사람이 죽으면 건물 안에다가⁷⁾ 殯의 상태로 안치했다가 3년이 경과한 다음에 좋은 날을 택하여 장사를 지냈다고 한다. 殯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고구려 측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데 중국 측 사료에 관련 기록이 상세하게 나타나고 있어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後漢書』 禮儀 下 大喪條에 기록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황제가 죽으면 死體에 옷을 입히는 小殯, 大殯, 殯의 순서로 의례가 진행된다. 소렴은 사체를 감싸는 것이며 소렴 한 다음 날에 대렴을 행한다. 대렴은 소렴한 사체를 판에 넣는 의식이다. 한편 (궁궐)正殿의 서쪽 계단에 구멍이들 판 다음 판을 묻어 놓는다. 이렇게 판을 묻어 놓는 것을 殯이라 한다. 빈의 상태에서 일정한 기일이 지나면 판을 꺼내 장지로 옮겨가 매장을 한다’⁸⁾ 고 기록되어 있다.

殯이라고 하는 용어는 죽은 자를 매장하기 전까지 판에 넣어 일정기간 보관해두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고구려왕이 죽음이후 곧 바로 왕릉에 매장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하자면 고구려왕은 무덤에 매장하기 전까지 어느 지역에 마련된 빈소에 안치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를 뒷받침해 주는 사례로서 광개토대왕의 경우가 있다. 그는 412년 10월에 사망하였는데, 정작 무덤에 매장된 것은 그로부터 23개월가량이 지난 414년 9월이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고구려왕의 빈소와 관련된 고고학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비해 백제에서는 빈소와 관련된 고고학 자료가 있다. 무령왕비의 殯所와 관련된 유적이 발견되었는데, 즉 당시 王城인 공산성에서 서쪽으로 떨어진 곳에 위치한 정치산 유적이라고 한다⁹⁾. 이 유적은 무령왕비가 매장된 무령왕릉에서 1km 가량 떨어져 있다. 백제 무령왕비는 무려 27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빈소에서 가매장의 상태로 있었던 것이다.

2. 왕릉의 선정

고구려왕이 빈소에 가매장된 상황 속에서 새로운 왕이 즉위하였고, 선왕을 어느 곳에 어떻게 매장할 것인지 하는 등의 장례에 대한 제반사항이 논의, 진행되었을 것이다. 먼저 논의 될 것은 왕릉의 입지선정이다.

(1)왕릉의 입지

왕릉은 어떤 장소들 선정하여 매장했을까? 왕의 장지와 관련해서는 고구려 왕호에서

7) 屋의 본래 의미는 죽은 사람이 와서 머물러 쉴 수 있는 건물이라고 한다(諸橋轍次, 『大漢和辭典』 권4, 大修館書店, 149쪽).

8) 장인성, 『백제의 종교와 사회』 서경, 2001, 165-173쪽.

9) 權五榮, 「고대 한국의 喪葬儀禮」 『韓國古代史研究』 20, 한국고대사학회, 2000.

김길식, 「빙고들 동해본 공주 정치산유적의 성격」 『고고학지』 12, 한국고고미술연구소, 2001.

어느 정도의 의문을 해소할 수 있다. 고구려 왕호를 크게 분류해보면, 추모왕이나 유리왕처럼 생시의 이름이 왕호로 된 ‘휘형왕호’, 태조대왕이나 신대왕 등의 ‘대왕형 왕호’, 광개토왕 등 왕의 치적이나 특성을 나타내는 ‘훈격형 왕호’, 서천왕이나 동천왕처럼 장지명을 가진 ‘장지명 왕호’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¹⁰⁾ 이 중에 장지명 왕호를 사용한 왕은 그 위치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다. 다음 표를 보기로 하자.

< 표 1 > 집안지역 고구려 장지명 왕호 일람표

대수	왕호명	재위기간	諱	諡	장지명
4	閔中王	44~48	解色朱	閔中王	閔中原의 石窟
5	慕本王	48~53	解憂解憂婁	慕本王	慕本原
9	故國川王	179~197	男武伊夷謀	故國川王國廣王	故國川原國川·國廣
10	山上王	197~227	延優位宮	山上王	山上
11	東川王	227~248	憂位居·郊歲	東川王東廣王	柴原
12	中川王	248~270	然弗	中川王中廣王	中川之原
13	西川王	270~292	藥盧若友	西川王西廣王	西川之原
14	烽上王	292~300	相夫揮矢婁	烽上王雄葛王	烽山之原
15	美川王	300~331	乙弗憂弗	美川王好廣王	美川之原
16	故國原王	331~371	斯由釗	故國原王	故國之原
17	小獸林王	371~384	丘夫	小獸林王小解朱留王	小獸林
18	故國廣王	384~391	伊連於只支	故國廣王	故國廣

위의 표는 장지명을 왕호로 사용한 왕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사후에 장지가 결정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자신의 장지를 생전에 부탁한 경우에는 그렇게 따랐다는 기록도 발견할 수 있다.¹¹⁾ 위의 표에서도 나타나듯이 왕의 장지가 석굴을 비롯하여, 언덕, 하천 가, 산 위, 들판, 숲속 등에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겠다.¹²⁾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위치는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이들 중에 특징있는 왕호가 있어 좀 더 추적이 가능하다. 하나는 故國이란 명칭이 공통적으로 사용된 왕이다. 또 다른 하나는 방향을 뜻하는 하천이 공통적으로 사용된 왕이다.

먼저 ‘故國’이란 명칭이 사용된 왕호이다. 여기에는 고국천왕, 고국원왕, 고국양왕이 해당된다. 이들 왕호는 죽은 후 붙여진 시호이다. ‘故國’이란 명칭은 ‘예전의 나라(서울)’라는 뜻을 가진다. 따라서 이처럼 ‘故國’이란 왕호를 사용한 왕의 명칭은 왕이 죽은 후 매장과정에서 시호로서 정해진 것이 아니다. 당대에 정해진 왕호가 아니라 후일 정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정해진 시기는 ‘故國’이라는 용어로 보아서 고

10) 임기환, 「고구려 왕호의 변천과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28, 한국고대사학회, 2002, 2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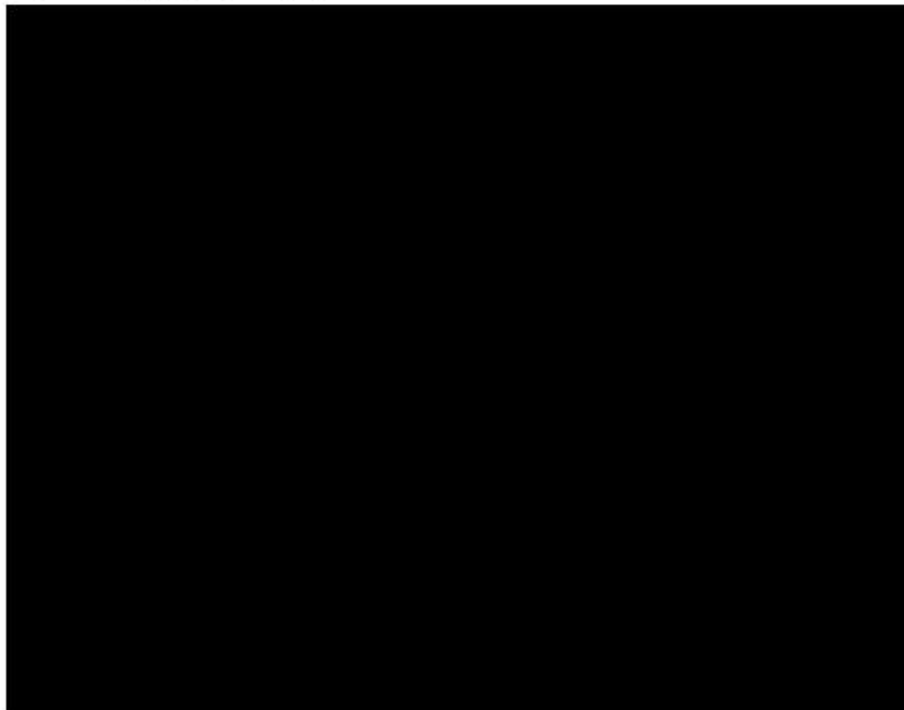
11) 생전에 석굴에 묻히기를 부탁한 閔中王과 산상왕릉 곁에 묻히기를 유언한 于太后의 경우가 있다.

12) 이외에도 新大王의 장지는 ‘故國谷’이라 하여 계곡임을 짐작케 한다. 한편 이들 왕호와 왕릉의 위치관계를 대조해보면 장지의 위치가 산위에서 대지나 평지로 전환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여호규, 註 9)-(11), 98쪽).

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한 이후의 시기일 것이다.¹³⁾ 그래야지만 고국(국내성)에 존재한 왕호가 설명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고국원왕의 경우는 ‘고국의 언덕에 묻힌 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로, 방향을 뜻하는 하천이 공동적으로 사용된 왕이다. 여기에는 동천왕, 서천왕, 중천왕이 해당된다. 東川, 西川, 中川이란 의미는 국내성을 기준으로 한 명칭일 것이다. 예를 들어 국내성의 동쪽을 흐르는 하천(동천), 중앙부를 흐르는 하천(중천), 서쪽부를 지나는 하천(서천)일 것이다.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현재 집안시의 하천 흐름을 파악하여 국내성 옆을 통과하는 하천(通溝河)이 中川, 국내성의 서쪽을 남북으로 흐르는 麻線河를 西川, 국내성의 동쪽부 즉, 태왕릉 주변을 남북으로 흐르는 소하천을 東川으로서 파악하고 있다.

< 그림 1 > 집안지역 고구려 왕릉 분포도¹⁴⁾



그렇다면 적어도 서천왕릉, 동천왕릉, 중천왕릉의 개략적인 위치는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고국원왕릉의 경우도 그 위치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삼국사기』에

13) 高寬敬「『三國史記』の原典的研究」1996, 熊山閣出版은 『新集』5권을 편찬하던 영왕왕 시기로 추정하였다.

14) 『왕릉보고서』9~10쪽의 도면을 수정하였음.

5월에 모용외가 내침하여 고국원에 이르러 서천왕의 무덤을 보고 사람을 시켜 파다가 인부 중에 갑자기 죽는 자가 생기고, 또한 (무덤 속)광중에서 음악소리가 나매, (그는)신이 있다고 두려워하여 곧 군사를 이끌고 돌아갔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5, 봉상왕 5년)

라 하는 기록을 보면 서천왕릉의 위치가 고국원에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고국원왕릉의 위치도 서천왕릉처럼 西川 주변(오늘 날의 麻線河 주변)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¹⁵⁾

(2)왕릉의 조건

고구려 왕릉으로서의 조건은 여러 가지들 들 수 있겠다¹⁶⁾. 집안지역에 산재한 고구려시대의 고분은 만 수천여 기를 헤아리고 있다. 이중에 2002년도 조사보고서를 보면 10,782기에 달하는 고구려고분에 대한 개별 정보를 일일이 수록하고 있다.

< 표 2 > 집안지역의 대형 고구려 격석총¹⁷⁾

고분구	20m이상	30m이상	40m이상	50m이상	현존격석총(기)
우산하	27	10	1	4	927
산정하	17	4			515
만보정	9				639
월정산	13		1	1	562
마선구	15	2	2	2	725
계	75	16	4	7	3,368

집안지역이 당시 고구려의 수도로서 기능했다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이와 같은 만여 기에 달하는 고분 중에서 왕릉을 찾아야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렇다면 고구려 왕릉의 기본적인 조건은 무엇일까? 이 시기 왕릉은 격석총이었음은 주지하는 바다. 10,782기의 고분 중에 격석총은 3,368기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 격석총에 대

15) 하지만 주 4)에서 보는 것처럼 대부분의 학자들은 東川부근에 소재한 것(우산 992호묘)으로 파악하고 있다.

16) 『왕릉보고서』(364-365쪽)에 따르면, 왕릉의 조건으로서 규모를 비롯하여 기와출토, 배장묘 및 제대의 존재, 우월한 입지, 능원 등의 시설, 부장품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17) 집안일대 대형격석총의 규모에 따른 분포비(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編著, 『洞溝古墓群-1997年調查測繪報告』, 科學出版社, 2002 및 『왕릉보고서』참조)

1.우산묘구

○ 50m이상 : 임강묘, 태왕릉, 2,110호묘, 3,240호묘. ○ 40m이상 : 2,954호묘. ○ 30m이상 : 장군분, 30호묘(黃泥崗大墓), 540호묘, 992호묘, 2,111호묘, 2,118호묘, 2,125호묘, 3,030호묘, 3,105호묘, 901호묘.

2.산성하묘구

○ 30m이상 : 전장 1호묘, 전장 36호묘, 전장 17호묘, 전장 145호묘.

3.월정산묘구

○ 50m이상 : 211호묘. ○ 40m이상 : 871호묘.

4.마선묘구

○ 50m이상 : 서대묘, 원추묘. ○ 40m이상 : 626호묘, 2,378호묘. ○ 30m이상 : 707호묘, 2,110호묘.

한 정보들 정리해보면 이들은 각기 그 규모에서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고분들이 그 규모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신분에 따른 고분의 축조가 位階化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하겠다. 따라서 왕릉을 구별해 내는 우선적인 기준은 커다란 규모가 될 것이다. 사실 왕릉은 죽은 왕의 권위를 과시하는 것이고, 이를 축조한 신왕의 권위와 왕권의 정당성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정 규모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위의 <표 2>와 기록상의 고구려왕을 대조해보자. 『삼국사기』 기록을 믿을 경우 유리왕이후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하기 까지 집안지역에는 18명의 왕이 존재하였다.¹⁸⁾ 이 경우 18개의 왕릉이 상정된다. 그런데 학계에서는 집안으로의 천도시기에 대해서 태조왕대 설 또는 3세기인 산상왕대 설로 각기 파악하고자 하는 견해 등이 있다.¹⁹⁾ 만일 산상왕대설을 취할 경우엔 집안지역에 10명의 왕이 존재한 것이 된다. 산상왕대부터라고 한다면 집안지역의 왕릉규모는 40m급 이상일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를 감안한다면 집안지역 왕릉의 규모를 대체로 추정해 볼 수 있겠다.²⁰⁾ 따라서 <표 2>를 감안해 볼 때 무덤의 크기가 최소한 30m급 규모 이상의 고분이 왕릉급고분에 해당될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²¹⁾ 어쨌든 『왕릉보고서』는 이중에 기와가 출토되는 13기의 대형무덤을 왕릉으로서 비정하였다.

3. 왕릉의 축조

(1) 축조시기

왕릉은 언제부터 조성되었을까? 또 축조기간은 얼마나 걸렸을까? 왕릉의 축조 시기는 두 가지 가능성을 검토해 봐야 한다. 하나는 왕이 자신의 무덤을 생전에 조성하였을 경우이다. 또 다른 하나는 왕이 죽고 난 이후 새로운 왕에 의해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첫째로 왕이 죽고 난 이후 새로 즉위한 왕에 의해서 왕릉이 축조되었을 가능성을 알아보자. 이른바 死後築造說이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고구려왕의 죽음 기사를 정리해보면 대체로 ‘왕께서 돌아가시니 (새로운 왕이 그들)○○에 장사지내고 謚號를○○왕이라 하였다’라는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왕이 돌아가시니 소수림에 장사지내고 호를 소수림왕이라고 하였다”²²⁾와 같은 소수림왕의 경우와 유사한 기록방식이다. 이러한 기록은 후대 왕실기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괄

18) ○ 우산묘구: 임강묘, 태왕릉, 장군분, 992호묘, 2,110호묘, ○ 칠성산묘구: 211호묘, 871호묘,

○ 마선묘구: 서대묘, 천추묘, 628호묘, 2,100호묘, 2,378호묘, ○ 산성하묘구: 전창38호묘,

19) 이 논란에 대해서는 여호규, 「고구려 국내천도의 시기와 배경」 『한국고대사연구』 38, 2005 참조.

20) 『왕릉보고서』(388쪽)는 미천왕릉과 서천왕릉이 도굴되었기 때문에 새로 왕릉을 조성하였을 것이라 하고는 집안지역에 적어도 20기의 왕릉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21) 물론 정변에 의해서 살해된 왕(基本王 燦上王)의 경우는 제외일 것이다. 또한 석굴에 매장된 민중왕릉의 경우도 제외라 하겠다.

22)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소수림왕 14년.

적으로 통일되어 기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장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일관성 있게 기록된 것으로 보아 왕의 사후 新王에 의해 왕릉이 조영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²³⁾

둘째로 왕이 생전에 자신의 무덤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이를 壽陵制로서 설명한다. 수릉이란 제왕이 생전에 자신의 릉을 조성한 것을 말한다. 중국에서는 전국시대부터 수릉이 조성되었다고 한다.²⁴⁾ 漢代의 제왕에게 수릉은 보편적인 것이었다.²⁵⁾ 고구려에서도 수릉제가 시행되었을 가능성은 다음의 사료에서 추정해 볼 수 있다.

男女已嫁娶, 更初送終之衣 厚葬, 金銀財幣盛於送事(『삼국지』 권30 동이전, 고구려)

고구려인은 결혼을 하면서부터 수의를 만들었으며, 후하게 장례를 치르는데, 장례 시에 금, 은, 화폐 등을 모두 사용했다는 기록에서 생전에 무덤을 축조하였을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왕이 생전에 자기의 장지를 정하여 부탁하였던 사료(閔中王, 于太后的 경우)라든지, 또는 광개토대왕이 생전에 자신의 무덤을 지킬 수요인의 문제를 걱정하여 이를 數로서 남긴 사실들은 고구려에 수릉제가 시행되었을 가능성을 상정케 한다. 사실 고구려왕의 수릉제를 전제로 하여 논지를 전개하는 견해는 지금까지도 학계에서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²⁶⁾

『왕릉보고서』는 고구려에 수릉제가 실시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고구려왕릉을 비정하였음이 이미 논의된 바 있다.²⁷⁾ 이러한 수릉설은 중국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이기도 하다. 장군분의 피장자를 장수왕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의 견해는 대부분 수릉설을 전제로 한다.

이와 같은 수릉설은 고구려왕릉 관련 고고학 자료를 검토할 때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왕릉보고서』를 보면 몇 개의 왕릉에서 干支명문이 새겨진 유물이 출토되었다. 이 연대관련 명문은 고구려 왕릉의 구체적인 비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다음 표를 보자.

23) 이러한 가능성은 유리왕의 경우에서 좀 더 분명해진다. 유리왕이 7월에 豆谷으로 행차하였는데, 10월에 豆谷離宮에서 돌아가자 豆谷東原에 묻었다고 한 기록(『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유리명왕 37년)에서 유리왕의 릉이 사전에 정해지지 않았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24) 양관지음/장인성, 임대희 옮김, 『중국역대陵寢 제도』, 서경, 2006, 21쪽.

25) 漢書禮樂志載前漢諸帝 壽陵曰 天子即位明年, 將作大匠營陵地(『後漢書』志8 禮儀下 大喪)

26) 李熙遠(註)3-(10))은 수릉제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27) 李熙遠, 「太王陵의 墓主는 누구인가?」 『韓國考古學報』 59, 한국고고학회, 2006.

< 표 3 > 고구려왕릉 출토 연대 관련기록

무덤명칭	연대관련명문	연대	비정	유물	비고
서대묘	己丑年	329	미천왕릉	권운문와당	미천왕 30년
우산하992호묘	戊戌年	338	고국원왕릉	권운문와당	고국원왕 8년
태왕릉	辛卯年	391	광개토왕릉	청동방울	광개토대왕 즉위년
전추묘	永樂	391~	고국양왕릉	암기와	광개토대왕의 연호

위 표는 『왕릉보고서』에서 연대관련 명문이 있는 고고학 자료들 가지고 비정한 왕릉이다. 서대묘에서 출토된 ‘己丑年’銘을 서기 329년으로 해석하였는데 이는 미천왕 30년에 해당한다. 이들 근거로 미천왕릉으로서 비정하고 있다. 『삼국사기』를 보면 미천왕의 죽음은 그로부터 2년 후인 32년(331년) 2월이었다. 이 자료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면 미천왕이 돌아가기 1~2년 전부터 자신의 왕릉을 축조했던 것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릉설의 유력한 근거가 된다.

또한 우산하 992호묘에서는 ‘戊戌年’, ‘丑’이라는 干支명문이 출토되었다. 먼저 무술년의 연대는 338년 또는 398년에 해당한다. 338년은 고국원왕 8년에 해당하며, 398년은 광개토왕 7년에 해당한다. 『왕릉보고서』에서는 338년으로 해석하고는 고국원왕릉으로서 비정하였다. 그런데 고국원왕은 재위 41년 10월에 돌아왔다. 서기로는 371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고국원왕은 죽기 30여 년 전부터 자신의릉을 조성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런데 이 무덤에서는 “戊戌年”와당 이외에도 “丑”명의 간지가 있는 권운문 와당이 출토되었다고 한다. 『왕릉보고서』는 이를 “己丑”일 것으로 추정하였다.²⁸⁾ 이 기축년에 대한 해석이 궁금해진다. 만일 기축년을 329년(미천왕 30년)으로 해석한다면 고국원왕릉에서 前王인 미천왕대의 유물이 출토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丑”명의 간지가 있는 권운문 와당의 연대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이 없다면 이 무덤을 고국원왕릉으로 비정하는 근거는 없게 된다. 그렇다면 이 자료는 수릉설의 근거로서 활용하기엔 분명치 않다.

태왕릉에서는 ‘辛卯年好大王’이라는 내용을 기록한 청동방울이 출토되었다. 신묘년은 광개토대왕 즉위년인 서기 391년으로 파악하고 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광개토왕의 즉위연대를 임진년 즉 392년으로 기록하였다. 하지만 『광개토대왕릉비』에는 즉위년인 영락원년을 신묘년(391년)으로 기록하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고고학 자료는 태왕릉의 피장자를 누구로 파악하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태왕릉의 피장자를 광개토대왕으로 해석할 경우, 광개토대왕이 즉위하는 해부터 자신의 왕릉을 미리 조성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선왕인 고국양왕의 殯 기간 중에 자신의릉

28) 이미 우산하 992호묘에서 ‘己丑年造瓦口口人’명의 권운문와당이 출토된 바 있다고 하는데(耿鐵華尹國有, 『高句麗瓦當研究』, 2001, 142쪽), 이를 감안하여 ‘己丑’일 것으로 추정한 듯하다.

을 조성하는 진풍경이 벌어진 결과가 된다²⁹⁾. 연대차이를 감안해 볼 때 수릉제와 연관시켜 파악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이와는 달리 태왕릉의 피장자를 고국양왕으로 해석할 경우이다. 고국양왕이 5월에 돌아가자 이어서 즉위한 광개토왕이 그 해에 부왕의 무덤을 축조하고 남긴 유물로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왕의 사후에 축조한 경우에 해당되어 수릉설은 성립되지 않는다.

천추묘에서는 永樂이라는 명문이 새겨진 기와가 발견되었다. 영락이라면 광개토대왕의 연호를 생각하게 된다. 이 명문자료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면 천추묘에 광개토대왕 시기의 흔적이 남은 것이다. 이들 수릉제의 입장에서 해석하자면 천추묘의 피장자를 광개토대왕으로 해석하게 된다. 하지만 천추묘의 피장자를 광개토대왕으로 파악하는 연구자는 거의 없다. 역시 수릉제와는 관련없는 자료라 하겠다.

이와 같이 고고학 자료를 검토해 볼 때 대부분의 고고학 자료가 왕릉의 사후 축조설을 나타내고 있다. 수릉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서대묘의 '己丑年' 자료 정도일 것이다. 하지만 '기축년'자료에 대한 해석에 여하에 따라서³⁰⁾ 수릉설은 유동성이 있다.³¹⁾ 어쨌든 왕릉의 축조는 왕의 생전에 자신이 축조했을 가능성과 사후에 새로운 왕에 의해서 축조되었을 두 가지 경우를 동시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한 필자의 생각은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히 밝혀지겠지만 사후축조설의 가능성이 보다 많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다면 왕릉에서 출토되는 유물에 대한 해석이 좀 더 분명해질 것이다.

(2) 축조기간

고구려 왕릉의 축조기간은 얼마나 걸렸을까? 이는 왕의 사후축조설과 수릉설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질 것이다. 필자는 사후축조설의 입장에서 검토하겠다. 왕의 죽음과 이와 관련된 葬送儀禮는 대단히 중요한 정치적 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어느 시기부터는 왕의 장례에 대한 의식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었을 것이다. 다음 사료를 보자.

A-1 : 사람이 죽으면 건물 안에다가 殯의 상태로 안치했다가 집안에 빈소를 만들어 3년이 경과한 다음 길일을 택하여 장사를 지냈다. 부모와 남편의

29) 李熙遠, 註) 3-(10), 87쪽.

30) 『왕릉보고서』(114-115쪽)에서는 '己丑年'이라고 해독하였는데, 사실 그렇게 해독한 근거가 분명치 않다. 중방에 있는 큰 글자들 '己'자와 비슷하다고 하였는데 모호하다. 중방부들 간지와 관련된 '己'銘으로 해석하였지만 중방부에 干支銘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와 관련하여 耿鐵華尹國有, 『高句麗瓦當研究』, 吉林人民出版社, 2001, 141쪽을 보면 마선중학교 서북쪽에서 출토된 권운문와당을 '己丑'으로서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명문을 자세히 보면 서대묘출토 '己丑'명 권운문와당(『왕릉보고서』圖面 93-2, 115쪽)과 유사함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개의 유사한 와당에서 '기축'이란 명문을 해독해낸 글자가 서로 다르다는데 있다.

31) '己丑'銘(329년)을 바탕으로 미천왕 죽음(331년)과의 2년 차이를 문헌기록 상의 오류로 해석하는 견해(여호규, 註) 3-(11), 119쪽)라고 한다면 사후축조설이 된다.

상은 3년 동안 복을 입고, 형제상은 3개월 간 입었다. 처음 돌아갔을 때는 곡을 하고 울었으나 장례지낼 때는 북 치고 춤추는 등 음악 속에서 일을 치렀다. 매장을 마치면 죽은 자가 생전에 입던 옷, 놀이도구, 수레 등을 묘 옆에 갖다 놓았다. 그러면 장례에 참석한 사람들이 다투어 집어가지고 갔다. (『北史』 권94, 열전82, 高麗).

A-2 : (왕께서) 39세에 국가와 세상을 버리시니, 갑인년 9월 29일 을유의 그 날릉에 안장하였다 (『광개토대왕릉비』).

A-3 : 고국천왕이 5월에 돌아갔다. (뒤이어) 산상왕이 왕위에 오르자 (고국천왕의 동생이자 산상왕의 형인) 발기가 반란을 일으켰다. 전쟁에서 패한 발기는 결국 자살하였고, 동생 계수는 발기의 시체를 임시로 草葬한 후에 돌아와 산상왕에게 보고하자 산상왕은 9월에 유사에게 명하여 발기를 장사지냈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고국천왕 19년 및 산상왕 원년 기록 참조)

사료 A-1은 고구려의 喪葬 期間에 대한 내용인데 부모의 경우는 3년, 형제의 경우는 3개월 동안 喪服을 입었다고 한다. 그러면 이러한 사료를 왕실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 사료 A-2는 광개토대왕의 경우인데 광개토대왕이 412년 10월에 돌아갔으며, 414년(甲寅年) 9월에 장례를 치렀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 기간을 합산해보면 햇수로는 3년, 정확하게는 23개월이다. 장수왕과 광개토대왕이 부자관계라는 것을 감안해보면, 사료 A-1의 부모상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다. 산상왕과 발기의 경우(사료 A-3)는 형제지간이다. 그런데 발기가 자살한 이후 장사를 치루기까지 걸린 기간(5월 반란-자살- 9월 매장)을 고려해볼 때, 이 경우는 사료 A-1의 형제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면 매장되기까지의 일정기간 동안 고구려왕은 어떻게 지냈을까? 앞장에서 살펴 보았듯이 고구려왕은 빈소에서 가매장의 상태로 있었을 것이다. 殯이라고 하는 용어는 죽은 자를 매장하기 전까지 판에 넣어 일정기간 보관해두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용어와 관련하여 비교되는 것은 백제의 경우이다. 백제 무령왕비의 경우 무령왕의릉이 이미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령왕릉에 매장되기까지 27개월이라는 기간이 걸렸다는 사실이다. 이는 사료 A-1기록에서 보이는 ‘殯’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료 A-1에 나타나는 ‘殯’이라는 용어는 일찍이 중국에서 사용된 개념이다. 중국에서는 왕 뿐 만이 아니라 官人, 유력자의 경우에도 殯을 행하였다고 한다.³²⁾ 따라서 중국에서의 빈의 기간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자. 중국에서는 殯하는 장소를 殯宮, 殯하는 기간을 殯期라 한다.³³⁾ 이와 같은 殯期에 대해서 “천자는 7일 동안 殯한 후에 7개월 만에 장사지낸다. 제후는 5일 만에 殯하고, 5개월 만에 장사지낸다.”³⁴⁾라고 하

32) 선비가 죽은 후 초혼 의례를 하고 입관준비가 행해진 후 정전의 서쪽 계단근처에 구덩이를 파서 가매장하니 이를 殯이라 한다(『儀禮』土葬禮)

33) 張寅成, 「南朝의 喪禮研究」 『百濟研究』 32, 2000, 154쪽.

여 신분에 따라서 일정한 기일이 정해져 있음을 알 수 있겠다. 이와 같은 葬期는 이미 『禮記』의 檀弓 上 및 喪大記 등에 규정되어 있는 중국의 오랜 전통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규정은 실제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한다.³⁵⁾ 과연 중국의 漢代 및 魏晉代 제왕의 죽음에서 매장까지의 기간을 조사해보면 殯은 형식에 그쳤고, 매장까지의 기간도 짧았던 것으로 나타난다.³⁶⁾

한편 중국에서는 죽음 후 치러지는 상장의례에서 매장까지의 기간(葬期)과 상복을 입는 기간(喪期)이 달랐다³⁷⁾. 매장이 끝났지만 상장의례는 종료되는 것이 아니다. 매장이 끝난 후에도 일정기간 상복을 입는 것이므로 매장하기까지의 기간과 상복을 입는 기간은 서로 다른 것이다. 즉 사망에서 매장까지 걸리는 장례기간(몇 일에서 몇 개월까지)과 그 후 상복을 입는 기간(사망 후 27개월)으로 구분된다.³⁸⁾

한편 고구려의 葬期는 중국의 경우와 달랐던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고구려왕의 경우 殯期와 喪期가 함께 3년이었다. 즉 사료 A-1과 『광개토대왕릉비』를 조합해보면 광개토대왕의 경우 殯期와 喪期가 23개월로 동일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사망 후 殯에서부터 매장에 이르는 기간이 23개월이나 된다. 이 기간이 또한 상복을 입는 기간이기도 하였다. 고구려의 葬期를 추정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고고학 자료가 있다. 우산하 3,319호 묘에서 연대가 새겨진 권운문 와당이 각기 출토되었는데, “乙卯年”銘과 “太歲在丁巳”銘이 있다. 이중에 을묘년은 355년, 정사년은 357년에 해당한다고 한다.³⁹⁾ 그렇다면 이 유물은 피장자가 죽은 후 무덤을 축조하면서 제작한 와당(355년)과 3년 후에 무덤을 완성하고 매장하는 과정에서 제작한 와당(357년)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34) 『漢書』列傳 권73, 韋賢傳 43, 韋賢 子玄成

35) 金澤敏 「兩漢 이후 皇帝短喪制의 확립과 官人三年服喪의 入律」 『東洋史學研究』 98, 2007, 144쪽.

36) < 표 4 > 漢 및 魏晉시대 제왕의 葬期

명칭	죽음	매장	소요기간	명칭	죽음	매장	소요기간
前漢文帝	6월 己亥	6월 乙巳	7일	後漢質帝	6월 甲申(시비됨)	7월 乙卯	33일
前漢景帝	1월 甲子	2월 癸酉	10일	魏武帝	庚子(崩) 辛丑(殯)	2월 丁卯	28일
前漢武帝	2월 丁卯 未央宮前殿殯	3월 甲申	18일	魏武帝	5월 丁巳	6월 戊寅	22일
前漢昭帝	4월 癸未	6월 壬申	49일	晉惠帝	11월 庚午	12월 己酉	16일
前漢宣帝	12월 甲戌	1월 辛丑	28일	晉廢帝	7월 戊戌	10월 乙丑	40일
前漢成帝	丙戌	4월 己卯	54일	晉穆帝	5월 丁巳	7월 丙戌	31일
前漢哀帝	6월 戊午	9월 壬寅	105일	晉懷帝	1월 丙申	3월 壬申	26일
後漢明帝	8월 壬子	8월 壬戌	12일	晉孝武帝	9월 庚申	10월 甲申	25일
後漢章帝	2월 壬辰	3월 癸卯	18일	晉安帝	12월 戊寅	1월 庚申	19일

37) 張寅成, 『백제의 종교와 사회』 서경, 2001 참조.

38) 喪期는 漢代와 魏晉代가 대체로 비슷했다고 한다(故曰三年之喪, 天下之達禮者也. 漢禮, 天子崩, 自不豫至於至遐及葬, 喪紀之制, 與夫三代變易, 魏晉以來, 大體同漢(『晉書』 권20, 志10, 禮中).

39)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集安市博物館, 「洞溝古墓群馬山墓區JYM3319號墓發掘報告」 『東北史地』 2005年-6期.

고구려의 상기와 관련하여서 백제의 경우에도 3년상을 치렀다고 한다.⁴⁰⁾ 실제로 무령왕릉의 경우, 무령왕은 523년 5월 7일 사망, 525년 8월 12일 매장(27개월), 왕비는 526년 11월 사망, 529년 2월 12일 매장(27개월)하였다고 한다. 장례기간이 고구려 광개토왕의 경우와 비슷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고구려는 빈기와 상기가 동일하여 중국의 경우와는 빈기와 매장시기 그리고 상복을 입는 기간에서 차이가 있음이 인정된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 고구려 또는 백제적인 변용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⁴¹⁾ 필자는 그러한 배경을 고구려의 고유한 매장의례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한다. 이는 고구려의 환경 및 정치사회적인 현실에 기인하였을 것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고구려와 인접한 동옥저의 경우가 알아보자

장사를 지낼 적에는 큰 나무곽(槨)을 만드는데, 길이가 10여 척이나 되는 데 한쪽부분을 열어 문을 만든다. 사람이 죽으면 시체는 모두 가매장을 하 되, 겨우 형체가 덜일 만큼 묻었다가 가죽과 살이 다 썩은 다음에 뻐만 추려 槨 속에 안치한다(『三國志』 권30, 위서 30, 오환선비동이전 동옥저)⁴²⁾

동옥저에는 고구려의 殯과 같은 형식의 매장방식이 있었음을 말한다. 고구려의 장례 풍습은 동옥저의 復次葬 풍습과도 연관이 있을 것이다. 중국에서는 매장하기까지 사체가 보존되었겠지만, 고구려에서는 肉脫되고 뻐만 남은 상태에서 매장되었을 것이다. 이는 장례의식 및 사후세계에 대한 인식의 근본적인 차이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해석될 수 있겠다. 결국 喪葬의례에서 고구려와 중국 전통문화와의 차별성이 인정된다.

양국 간의 이와 같은 차이는 무덤의 축조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중국에서는 죽음이후 매장하기까지의 기간이 짧아서, 이 기간 동안에 거대한 릉을 조성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중국 제왕의 경우 죽음이후부터 매장하기까지의 실제 기간은 몇 일에서 부터 몇 개월 정도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제왕이 생전에 자신의 릉을 미리 축조해두는 壽陵制가 발달하였고 이것이 판례처럼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喪葬의례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고구려의 경우는 매장하기까지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 그 기간 동안에 왕릉을 조성할 기간이 충분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고구려 왕릉은 선왕이 죽은 후 새로 즉위한 신왕이 주도하는 상장의례에 포함되어 진행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축조되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고구려왕이 죽으면 곧 바로 장례를 치루지 않았다. 왕은 죽은 후 빈소에서 3년간 방 있었고, 이 기간 동안 릉을 축조하여 매장하였다고 판

40) 父母及父死者 三年居服(『北史』 권94, 열전82, 百濟), 『隋書』 백제전을 보면 喪制가 고구려와 동일하다는 내용이 있다.

41) 권오영, 「고대 한국의 상장의례」 『한국고대사연구』 20, 한국고대사학회, 2000, 25쪽.

42) 其葬作大木槨, 長十餘丈, 開一頭作戶, 新死者皆假埋之, 才使覆形, 皮肉盡, 乃取骨置槨中(『三國志』 권30, 魏書 30, 오환선비동이전, 東沃沮).

단된다. 광개토대왕의 경우는 23개월이었다.

(3) 축조규모

왕릉의 축조는 대체로 先王에 뒤이어 즉위한 新王의 몫이었다. 물론 선왕이 생전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무덤을 축조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선왕이 죽고 난 이후 상장의례가 진행되는 한편으로 새로운 왕의 즉위식이 거행되었을 것이다. 새로운 왕은 즉위한 이후에도 얼마동안은 선왕의 상장의례를 주관하였을 것이다. 이와 관련한 첫 번째의 대외적인 행사는 왕릉축조 공사였다. 왕릉의 축조는 죽은 왕의 권위를 내세우고, 왕릉의 축조과정을 통하여 신왕의 권위와 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정치적인 행위이다. 따라서 집안지역에 산재한 수천기의 격석총 중에서 왕릉여부를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은 그 규모가 될 것이다.

고구려 왕릉은 초기부터 일정한 규모를 지녔던 것은 아니다. 고구려사의 발전과정에서 왕릉의 규모와 매장방식, 부장품등의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왕릉은 축조하기 전후의 정치적인 상황, 신왕의 의지 및 조건에 따라서 그 규모가 달라졌을 것이다. 부자상속의 경우와 형제상속의 경우에도 왕릉의 규모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또한 왕권의 계승상황에 따라서도 규모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다음 사료들 보자

B-1 : (두로가) 칼을 빼어 왕을 시해하였다. 모본원에 장사지내고 묘호를 모본왕이라 하였다. (고구려 본기 5, 모본왕 6년)

B-2 : (창조리가 봉상왕과 숙질지간인)乙弗을 맞아 왕으로 삼았다. 廢王(봉상왕)은 화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자살하매 (그의)두 아들도 따라 죽었다 (고구려본기 5, 봉상왕 9년)

모본왕은 학정으로 인해 시종하던 부하 杜魯에 의해 시해되었고, 왕권은 태조왕에게 넘어갔다. 이후 고구려 왕권은 태조왕계로 바뀌게 된다. 태조왕은 유리왕의 아들이다. 따라서 모본왕과는 4촌 형제간이 된다. 왕계가 바뀐 이후 고구려인들에게 붙여진 태조왕이라는 시호에서 태조왕권의 독자성과 독립성을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학정으로 인해 시해된 모본왕의 경우는 왕릉으로서의 격을 갖추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유사한 경우로 폐위된 烽上王이 있다. 추대를 받아 즉위한 美川王은 봉상왕의 조카가 된다. 숙질간에 왕권이 바뀐 봉상왕의 경우도 왕릉으로서의 격을 갖추기 어려웠을 것이다⁴³⁾. 또한 학정으로 明臨答夫에 의해 시해된 次大王의 경우도 있다. 석굴 안에 묻힌 閔中王의 경우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구려 왕릉은 왕릉으로서의 규모를 갖추었을 것이다. 광개토대왕

43) 桃脩略輔는 마선구 2,378호묘(46m×30m)를 봉상왕릉으로 비정하고 있으나 뚜렷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註 3)-23, 191쪽).

릉의 경우 『광개토대왕릉비』의 거대함과 무덤을 지키며 관리하는 330가에 달하는 수묘인의 숫자로 보아 왕릉의 규모가 대단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광개토대왕 사후 3년 만에 이루어진 장례절차와 함께 거대한 비석을 세워 선왕의 업적과 묘의 관리에 대한 사항을 세상에 공표한 『광개토대왕릉비』는 아들인 장수왕에 의해서 기획 실행된 정치 행사였다. 수도 안의 언덕 위에 세워진 7m에 달하는 거대한 비석의 존재는 보는 이들을 압도했을 것이다. 물론 이 비석이 고도로 정제된 漢文으로 기록되어 있어 당시 이를 해독하여 이해할 수 있는 백성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편 적어도 소수림왕대에 이르러는 고구려 왕릉의 규모와 장례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졌을 것이다. 이러한 왕실의 상징의례는 율령에 포함되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4) 축조방법

집안 지역의 고구려 왕릉은 돌로서 봉분을 덮는 양식인 적석총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현상은 평양천도 후 점차 흙으로 봉분을 덮는 봉토분으로 바뀌어 졌다고 한다. 『왕릉보고서』를 보면 왕릉으로 비정된 13기의 무덤 모두가 적석총이다. 하지만 왕릉의 내부구조가 알려진 것은 태왕릉과 장군분 정도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왕릉은 대부분 파괴되어 그 원상을 잃고 있다. 서천왕릉과, 미천왕릉이 도굴되는 기록⁴⁴⁾을 염두에 둘 때 왕릉은 이후에도 계속 도굴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서 매장방법이나 규모, 부장품등의 구체적인 정보들을 파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고구려 왕릉은 축조방식에 따라서 시대성이 있다고 한다. 그 순서는 階梯積石墓→階段石槨(石槨)積石墓→階段石室積石墓 順으로 발전하였다고 파악하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라 하겠다. 물론 계단을 만드는 방식에 따라서 階梯式에서 階段式으로 발전했다고 한다. 석곽, 광실이라는 용어자체도 모호하지만, 석곽은 기본적으로 수혈식, 광실은 횡혈식에 대응하는 매장구조라고 한다⁴⁵⁾. 『왕릉보고서』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고구려 왕릉은 외부는 적석총, 내부의 무덤방은 나무구조물이거나 또는 석실이었던 것으로 정리된다. 나무구조물은 목곽 또는 목실로 분류될 수 있겠다. 하지만 목곽과 목실의 구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분명치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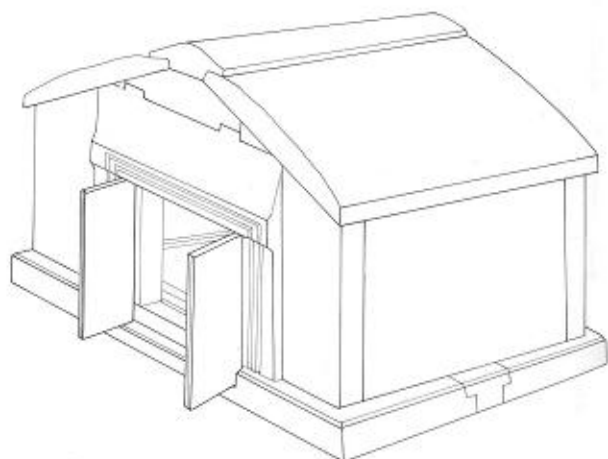
무덤방에 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잘 남아있는 것은 무덤방을 석실로 조성한 왕릉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왕릉은 장군분, 태왕릉, 천추묘이다. 축조순서는 천추묘→태왕릉→장군분의 순서라고 한다. 무덤방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은 태왕릉과 장군분이다. 장군분은 석실 안에 2개 돌로 만든 판대가 있고 그 위에 목관이 놓여졌다.

44) 왕릉에 묻혀진 매장품은 약탈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5, 봉상왕 5년조 및 고구려본기 8 고국원왕 12년조 참조. 왕릉뿐만 아니라 신하의 무덤 같은 경우도 약탈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니 이는 관구검의 침입 시에 관구검이 명을 내려 고구려의 신하였던 得來의 무덤을 헐지 못하도록 하였던 사실(『삼국사기』 고구려본기 5, 동천왕 20년)에서 짐작할 수 있다.

45) 강현숙, 「중국 길림성 집안지역 고구려왕릉의 구조에 대하여」 『한국고대사연구』 41, 한국고대사학회, 2008.

태왕릉은 석실 안에 집의 모습을 모방한 형태의 石槨이 있고 그 석곽 안에 2개의 돌로 만든 판대가 있고 그 위에 각기 목판이 놓여졌다. 부부합장일 것이다. 태왕릉과 장군분은 무덤의 축조기술이나 방식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⁴⁶⁾ 태왕릉의 석실 안에 만들어진 석곽의 모습은 고구려 왕릉의 내부시설을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다음 그림을 보자.

< 그림 2 > 태왕릉 家形石槨



위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석곽이 가형(家形)의 모습이다. 태왕릉 직전의 고구려 왕릉으로 알려진 천추묘의 경우는, 『왕릉보고서』(175쪽)에 태왕릉과 유사한 모습의 석곽 部材가 다수 발견되었다고 한다. 역시 家形석곽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은 무덤방이 봉분의 정상부에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상부에는 다량의 기와와 와당 등이 출토되고 있다. 이는 무덤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와로 덮은 시설물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고고학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무덤의 상부에 瓦家 건물물을 조형하였던 흔적으로서 이해되어 왔다. 그렇다면 이들 왕릉은 기와, 와당으로 덮여진 장엄한 모습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장엄함을 더하기 위해서 와당의 결면에다가 붉은 색을 덧칠하기도 하였다.

문제는 장군분, 태왕릉, 천추묘 이전에 해당하는 고구려 왕릉의 내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는 점이다. 하지만 그 모습을 알 수 있는 자료는 남아있지 않다. 이들 왕릉을 답사해 보면 대부분 분구의 정상부가 움푹 꺼진 형태로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들 통해 무덤방이 무덤의 상단부에 마련되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처럼 정상부

46) 東瀛, 「高句麗王陵と巨大積石塚-國內城時代の陵園制-」 『朝鮮學報』 199, 200合, 日本 朝鮮學會, 2008.

가 움푹 꺼진 형상은 무덤방이 나무구조물(목곽, 목실)로 이루어졌음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⁴⁷⁾ 따라서 나무구조물로 이루어진 무덤방이 부패하면서 무너져 내린 현상으로서 파악하거나 또는 후일의 약탈에 따른 파괴현상으로 파악되기도 한다. 이러한 나무구조물의 가능성은 무덤에서 출토되는 격석가 근거가 되기도 한다. 임강묘, 서대묘, 우산하 992호묘 등에서 격석과 판목이 발견되었는데 이중 격석은 나무구조물을 조립하는데 사용되었을 것이다. 또한 서대묘, 우산하 992호 묘, 우산하 2,110호 묘, 칠성산 211호 묘에서는 휘장걸이(帳鉤)가 발견되었는데, 나무구조물의 내부모습을 추정케 한다. 이는 생전의 생활이 죽어서도 연장되어 휘장이 있는 방에 묻혔던 것이라 하겠다. 고구려고분 벽화에 나타나는 휘장이 쳐진 실내를 연상케 한다. 이 경우엔 거대한 나무구조물도 연상해 볼 수 있다.

문제는 무덤방의 상부를 어떻게 구성하였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의문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는 역시 왕릉의 봉분 상단부에 흩어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는 기와편, 와당⁴⁸⁾의 존재이다. 이와 같은 기와의 존재는 무덤방의 상부를 덮은 것이라 이해된다. 이렇게 무덤위에 지붕을 덮는 풍습은 고구려에 이웃한 勿吉에서도 찾을 수 있다.

부모가 봄이나 여름에 죽으면 세워서 묻고는, 무덤 위에 지붕을 지어 비나 습기가 차지 않도록 한다.(『魏書』권100 열전88, 勿吉國).

이 기록은 물길의 무덤축조 풍습을 전하는 것이다.⁴⁹⁾ 고구려격석총인 우산하 3,319호묘에서 나온 권운문와당에 “日爲中郎及夫人造蓋基瓦”라는 명문을 통하여 고구려에서는 무덤을 덮는 기와(基瓦)를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⁵⁰⁾

기와를 가지고 무덤을 덮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덤방의 천정부를 지붕모양으로 구성한 후에 기와, 와당 등을 덮었을 것이다.⁵¹⁾ 이 경우 무덤의 지붕역할을 하였을 것이므로 무덤의 상부 즉 지붕부분은 하늘에 노출되기도 하였을 것이다.⁵²⁾ 우산하 2,100호묘의 경우에는 封石 위에다가 기와를 가지런히 덮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47) 무덤방이 대부분 훼손되어 그 원상을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전추묘 이전 시기의 왕릉 중에 일부가 석실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무덤방은 대체로 돌로서 축조한 석곽으로서 파악하기도 하지만, 이들 왕릉에서 석곽의 흔적으로 볼 수 있는 石槨시설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48) 이 시기의 왕릉에서 출토되는 와당은 주로 권운문 와당이다.

49) 그런데 이 보다 앞서의 기록인 『三國志』물길전을 보면 『魏書』의 기록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즉 죽은 당일 매장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 기록은 죽은 당일 매장하던 풍습이 시대가 흐르면서 물길이 인근 국가 매장풍습의 영향을 받은 현상으로서 파악할 수 있다.

50) 우산하 3,319호묘는 무덤방을 벽돌로 구성하였다.

51) 산성하전창 38호묘, 우산하 2,100호묘, 임강묘에서는 지붕의 용마루를 구성하는 기와(脊瓦)가 출토되어 지붕모습을 추정해 볼 수 있다.

52) 김용성, 「고구려격석총의 분제와 묘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 『북방사논총』 3, 고구려연구재단, 2005, 145쪽.

그렇다면 나무구조물의 형태에 대한 추정이 좀 더 분명해진다. 그 단서는 태왕릉에 놓여진 家形석곽에서 찾아진다. 사실 태왕릉의 석실 안에 놓여진 가형석곽은 존재의미를 찾기가 어렵다. 무덤방이 나무구조물에서 석실로 대체된 이후부터는 가형석곽의 존재는 이미 그 용도를 상당히 상실했을 것이다. 실제로 장군분을 조영하는 단계에서는 이러한 가형석곽은 사라졌다. 그렇다면 태왕릉에 남아있는 家形석곽은 그 이전의 풍습을 반영하는 유산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천추묘에서도 가형석곽의 석재가 발견되었음은 앞서 설명한 바 있다.

필자는 이러한 현상을 감안하여 천추묘 이전에 해당하는 왕릉 무덤방의 나무구조물 모습을 추정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그 모습은 집의 형태(家形)를 띄고 있었다고 해석하고자 한다. 죽어서도 살아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집의 형태를 모방한 나무구조물에 묻혔던 것이다. 나무로 (맞배)지붕 모양의 지붕을 구성하고는⁵³⁾ 그 위에 기와나 와당을 덮었으며, 이러한 무덤방 주변에다가 돌을 쌓아 무덤을 전체적으로 보호하였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렇게 파악할 경우 『삼국사기』의 서천왕릉 도굴기록⁵⁴⁾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무덤방이 석실로 대체되면서 나무구조물의 상부를 기와로 덮을 필요성은 줄어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풍습은 전통으로서 유지되었다. 사실 석실무덤의 무덤방 안에서는 다량의 기와가 출토되지 않았다. 그런데 천추묘, 태왕릉, 장군분의 경우에도 수많은 기와와 와당 등이 무덤주변에서 출토되고 있다. 무덤 위를 덮었던 흔적으로 이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기와를 어느 부분에 어떻게 덮었는지 하는 구체적인 양상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고고학적인 현상에 대해서 무덤의 상부에 瓦家 건물을 조영하였던 흔적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에 비해 『왕릉보고서』(335쪽)는 태왕릉의 경우를 예로 들어 점토와 백회돌 충분히 이용하여 무덤의 상부를 덮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이후 무덤을 덮은 기와의 존재는 평양지역의 왕릉으로 추정되는 경신리 1호분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이 경우 석실분의 개석위에 기와(암기와, 숫기와, 와당)를 가지런히 덮었고, 그 위에 봉토를 흙으로 조성하였다고 한다.⁵⁵⁾

이렇게 볼 때 집안지역 고구려 왕릉의 축조방법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돌로서 봉분을 크게 만드는 적석총의 형식인데 만드는 봉분을 방식은 계장식에서 계단식으로 발전하였다. 왕릉의 축조는 땅위에 돌을 높게 쌓아 커다란 봉분을 만들고, 봉분의 상단부에 무덤방을 구성하였을 것이다. 무덤방은 나무구조물(목곽)이나 돌구조물(석실)의 형태이다. 이중 석실은 현재 장군분, 태왕릉, 천추묘가 해당한다. 석실이전의 무덤방은 목곽으로 만들어졌다. 나무구조물은 家形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무덤방의 천정부들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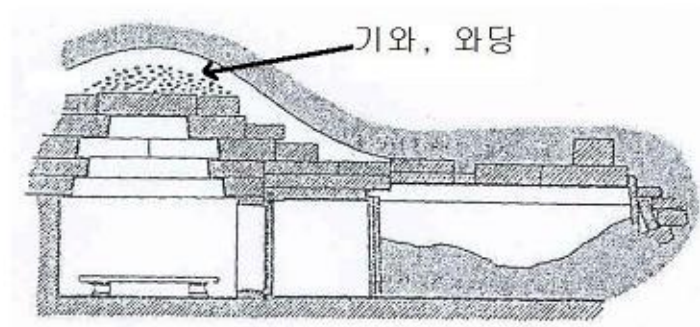
53) 方起東, 「高句麗의 葬制和 葬俗」, 『歷史與考古信息』 1993-1期, 1993.

54) 모용외가 침략하여 고국원에 이르러 서천왕의 능묘를 보고 사람을 시켜 파다가 인부중에 갑자기 죽는 자가 생기고 또한 황궁에서 음악소리가 나매...(『삼국사기』 고구려본기 5 烽上王 5년)

55) 關野貞(『朝鮮の建築と藝術』, 岩波書店, 1941, 378쪽)은 석실 안으로 빗물이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덮은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림 9>은 同書의 375쪽을 일부 수정.

봉모양으로 만들고 기와나 와당 등을 덮었으며, 무덤방의 외곽부에는 돌로 쌓아 나무 구조물을 보호하였다. 기와로 덮여진 나무구조물은 판이 옆으로 들어가도록 입구가 만들어진 시설, 즉 횡혈식 또는 횡구식의 구조였을 것이다.

< 그림 3 > 경신리 1호분의 기와와 와당



Ⅲ. 맺음말

〈集安지역 高句麗 王陵의 造營〉에 대한 토론

강현숙(동국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발표문에서는 국내성 시기 왕릉 비정을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써 문헌 기록과 발굴조사 성과를 고려하여 국내성 시기의 고구려 왕릉의 장묘제를 살폈다.

그 결과 왕릉은 한 변 30m 이상의 초대형분이었을 것이며, 왕이 죽으면 殯禮를 행하고 대략 3년(광개토왕 23개월) 정도의 빈기간을 거친 후 매장되었다고 보았다. 수릉제의 존재에 대해서는 명확히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으나 상장기간을 고려하여 다소 부정적인 입장인 듯하다. 또한 천추총과 태왕릉의 가형석곽에 근거하여 先造營된 황실계단적석총의 경우 매장부는 가형목곽이었고, 가형목곽 위에 매장부를 보호하기 위해 기와나 와당을 덮은 나무 구조물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에 발표문의 논지 전개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들 질문을 함으로써 토론에 가능하고자 한다.

첫째는 왕릉 비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수릉제의 존재 여부에 관한 질문이다. 1) 발표문에서는 연대를 비정할 수 있는 간지명 와당을 통하여 서대총의 己丑명 와당은 수릉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았으나, 기축명과 戊戌명 와당이 공반된 우산하 992호분의 경우에는 수릉 여부에 대한 상이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한 질문으로 서대총과 우산하 992호분 권운문 와당의 명문은 造瓦와 吉祥의 내용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이와 같은 권운문 와당은 국내성의 생활유적에서 출토된 바 있으며, 오히려 조와와 길상의 내용으로 된 권운문 와당의 출토 예는 고분보다 생활유적에서 더 높은 비중을 점한다. 따라서 간지명이 있는 권운문 와당이 무덤 축조에 사용하기 위해 별도로 제작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서대총이나 우산하 992호분의 간지명 권운문 와당은 무덤 조성시기와 직접 대응시킬 수 없으며, 다만 간지에 의해 비정된 연대가 무덤 조성 시기와 그리 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려 줄 뿐이다. 때문에 우산하 3319호분의 정사명 와당과 같이 무덤 축조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와당의 연대를 무덤의 조영시기와 직접 연결시켜 주인공을 비정하거나 수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조심스럽다. 2) 더욱이 서천왕이나 미천왕이 도굴되는 화를 입었다는 기록과 와당이 가형 목곽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목조 구조물의 부재였다는 발표자의 해

석을 결부시켜보면 무덤 조성 이후에 보수와 수축의 개연성을 고려해야하므로 권운문 외당의 간지가 수축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는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권운문 외당의 간지명을 통한 수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무덤의 피장자 비정이 선행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발표자는 그러한 입장에서 논지를 전개한 것인지? 3) 덧붙여 천추총, 태왕릉, 장군총과 평행기의 중국의 예를 보면, 복위 효문제의 수릉인 만년당이 있으나, 효문제는 만년당에 매장되지 않았으며, 그의릉인 長陵은 천도한 낙양에 자리한다. 중국의 예로 미루어 고구려에서 수릉이 얼마나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적용되었는지 의문이 든다. 이는 곧 수릉을 판단하기 위해 고려해야 변수들이 매우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릉에 대한 발표자의 밑그림이 있는지 궁금하다.

둘째는 왕릉 분구의 구조와 관련된 질문으로, 분구에서 다량의 평와와 막새 그리고 척와 등의 존재로 미루어 분구에 목조 구조물의 가능성은 충분히 상정되지만 목조구조물의 형태 복원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집안 지역에서 왕릉으로 비정된 격석총은 시간에 따라 외형과 매장부 구조에서 변화를 수반하였다. 가장 이른 단계의 제장식 격석총의 경우 분구 위에 목조 구조물이 가능한 구조는 아니며, 계단식의 황실격석총의 경우에도 잔존하는 계단구조로 미루어 매장부를 보호하기 위한 목조 구조물의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매장부를 보호하기 위한 묘상의 구조물은 천추총, 태왕릉, 장군총 등에서나 가능했을 것이다. 따라서 분구에서의 목조구조물도 시간에 따라 변화하였을 것이다. 또한 왕릉으로 비정된 격석총 외에도 격석총에서도 평와의 출토 예가 있기도 하므로 분구 위에 목조 구조물이 왕릉에만 적용되는 배타적인 시설은 아니었을 것이다. 즉 고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왕릉으로 비정된 무덤과 그 외 무덤에서의 기와를 이용한 시설물의 형태는 차별적이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통 위에 구조물의 형태가 어떠하였을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셋째 왕릉의 조영과 관련하여 먼저 고려되어야 할 문제가 룡제가 있었는가, 있었다면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왕릉을 비정하는데 있어서 규모와 외형이 가장 가시적인 속성이지만, 분구의 구조물, 무덤 앞의 계대나 배총, 능사 등도 고려해야 될 속성이라고 생각된다. 집안 왕릉 보고서에서는 무덤 구조의 여러 요소들을 왕릉의 구성 요소로 들고 있는데, 발표자는 왕릉의 조건으로 30m 이상의 규모만을 언급하였다. 왕릉이 매장행위의 가시적 결과물이고, 고구려에서 왕의 사회정치적 지위를 고려해 볼 때 왕릉 조영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요소는 보다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발표자의 입장은 어떠한지?